

손명수 차관 “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”

22일 고속도로 건설현장 찾아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·예산 조기집행 당부

-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은 22일(금)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재정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.
- 손 차관은 건설현장의 코로나19 예방조치 현황 및 공사 진행현황을 보고 받은 뒤,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“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평택 삼성전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장이 폐쇄된 사례에서 보듯 상황 종식까지 지속하여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” 고 강조했다.
- 또한, “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실물경제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” 하다면서 “차질 없는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목표를 달성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”을 강조했다.
- 마지막으로 손 차관은 “사업 준공 시까지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당부했다.

2020. 5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